

우리 나라 物價構造의 分析 (其二)

— 農產物價格形成의 바탕과 特徵 —

羅 雄 培

<目 次>

1. 序 論
2. 우리 나라 農產物價格形成基盤의 特徵
3. 農產物價格의 具體的變動樣相
 - (1) 農產物價格의 變動推移
 - (2) 類別農產物價格의 變動推移
 - ㉠ 穀 物
 - ㉡ 菜 蔬 類
 - ㉢ 果 實 類
 - ㉣ 特用作物
 - ㉤ 畜 產 物
4. 우리 나라 農產物價格政策의 推移와 그 效果
5. 結論—農產物價格政策의 方向

1. 序 論

1945年 解放以後 近 20年에 걸쳐 우리 나라 經濟가 끊임없는 惡性「인플레이션」에 휩쓸려 오는 동안 農產物價格政策은 언제나 物價政策의 中心課題가 되어 왔다. 이와 같이 農產物價格이 다른 어느 商品群의 價格 보다도 論議의 焦點이 되어 왔다는데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다.

우선 이들 農產物은 國民의 食生活에 하루도 빠트릴 수 없는 食糧이 되며 따라서 農產物價格의 上昇은 非農家は 勿論 食糧의 自給이 不可能한 零細農家의 食生活을 크게 威脅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生計費의 上昇을 通하여 賃金 및 餘他物價의 上昇을 先導하고 「인플레이션」을 激化시킬 것이라는데 그 첫째의 理由가 있다. 지난날 米穀을 中心으로한 穀價波動이 政治 및 社會問題로 크게 擴大되었으며 한때 穀價의 上昇이 餘他物價上昇의 先導的 役割을 한 바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事情을 充分히 說明하여 주고 있다.

또한 農業은 우리 나라 產業構造上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農產物價格政策은 이들 農村經濟의 振興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經濟成長에 있어서 重要한 影響을 끼칠 것이라는 點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 農家は 全國民의 65%에 達하고 있으며 國民總生産額中에서 農業部門의 比重은 40%를 上下하고 있다. 따라서 農產物價格의 騰落은 農

家經濟에 큰 影響을 끼치게 되며 農產物價格의 지나친 下落은 農家所得을 減少시키고 農民의 生産意慾을 低下시킬 것이며 農業生産의 增加를 阻害할 뿐 아니라 農家購買力의 減少로 이를 相對로한 工產品의 生産萎縮으로 까지 波及하여 經濟成長을 크게 遲延시킬것이다. 더구나 農產物은 收穫期가 季節的으로 集中되어 있으며 그 保管, 運搬의 困難性 때문에 季節的인 價格變動의 幅이 크다.

이와 같이 農產物價格에 대하여 生産者와 消費者의 利害의 相違는 물론 生産者인 農民에 있어서도 階層에 따라서 이 問題에 대한 利害는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國民經濟上으로 보아 이러한 利害를 調整하여 農產物價格을 安定시킬 適正水準을 策定하고 季節的인 起伏을 緩和시킨다는 것은 極히 所望스러우면서도 困難한 課題의 하나다. 故로 適正水準의 策定維持는 여러가지 要因들을 면밀히 檢討한 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例를 들면 生産費, 農民이 賣買하는 物資의 價格 및 競爭作物의 價格等의 變化와 一般都賣物價 및 一般生計費의 最近動向과 消費者의 所得水準에 대한 檢討가 必要하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過去의 農產物價格 政策은 再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過去의 農產物價格政策은 이와 같은 여러 要因에 대한 合理的인 檢討를 土臺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本稿는 우리 나라 農產物價格形成의 바탕과 最近 10年間의 變動推移 및 特徵을 分析把握함으로써 農產物價格政策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方向을 示唆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試圖는 利用 可能한 基礎資料의 未備로 相當한 制約이 不可避하였다.

2. 우리 나라 農產物價格形成基盤의 特徵

우리 나라에 있어서 農業은 아직도 經濟의 中樞的 支柱로서 國民多數에게 生計를 提供하며 國民所得 輸出 및 政府歲入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農業의 大部分은 아주 적은 面積 때로는 한조각 밖에 안되는 耕作地를 가진 零細 및 小農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첫째의 特徵이 있다. 우리 나라의 農家 一戶當耕地面積은 0.84 町步이며 1 町步未滿의 農家가 全體 農家の 72.8%에 達하고 3 町步 以上은 0.3%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各國의 戶當耕地面積과 比較하여 보면 表 2와 같다. 이와 같은 農業經營의 零細性은 다음과 同같은 點에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즉 우선 生産費의 지나친 上昇을 招來한다. 最近의 한 調査는 우리나라에서 13 反步 以下の 農家は 適正規模에 達하지 못하고 있으며 相對的으로 높은 生産費用을 投入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¹⁾. 그러나 價格形成에 미치는 經營規模의 零細性의 重要性은 높은 生産費의 問題에 限定되어 있지 않다. 이들 零細農은 經濟力의 바탕이 매

(1) 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韓國農業의 諸問題」p. 146

表 1. 耕作面積別 農家戶數

農家戶數		農家戶數	
1 町未滿	1,756,500	3 町以上	7,265
1 町以上未滿	505,093	合 計	2,409,453
2 町以上 3 町未滿	140,595		

資料：經濟企劃院刊「韓國統計年鑑」1962

表 2. 各國의 戶當 耕地面積 比較

單位：헥타=約 1 町步

國 別	戶當地面積	國 別	戶當耕地面積
카 나 다	215	西 獨	8.1
美 國	118.4	和 蘭	7.4
英 國	36.3	伊 太 利	5.0
佛 蘭 西	17.2	白 耳 義	1.8
丁 抹	15.7	日 本	1.2
瑞 典	9.8	韓 國	0.87

資料：魚善善, 李進雨, 崔丙恒 其他 著「農業經濟의 基礎理論」p. 346

우 연약하며 따라서 秋收直後에 作物의 大部分을 팔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急한 現金需要에 充當하고 또 中間商人 高利貸業者에게서 얻은 先貸를 갚기 위해서인 것이다. 많은 零細農들은 그들의 消費用으로 春窮期에 오히려 食糧을 購入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要因 때문에 農產物價格의 季節變動은 深化하며 이러한 季節變動은 收穫에 異常이 있을 때는 極度로 加重된다. 더구나 이것은 農產物價格이 流通過程에 있어서 中間商人에 의하여 操作될 餘地를 充分히 남겨 놓는 것이 되며 農產物價格의 上昇은 大農 및 中間商人의 利益으로 歸屬되고 大多數의 農民에게는 別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生計維持水準 또는 그 以下의 農民이 壓倒의 多數임으로 總農產物中 自家消費用을 除外한 比較的 小部分만이 市販된다. 우리 나라의 米穀 및 麥類의 경우를 보면 商品化率은 米穀은 44.9% 麥類는 24.4% 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現金販賣에 의한 商品化率은 훨씬

表 3. 耕地規模別 米麥商品化率

規 模 別	米穀商品化率 (%)	麥類商品化率 (%)
全 國 平 均	44.9(27.1)	24.4(12.6)
5 反步未滿	32.5(19.9)	20.3(10.0)
5 反步~1町步	34.8(21.8)	23.0(10.7)
1 町~2 町步	53.1(30.7)	28.7(15.2)
2 町步 以上	57.2(36.8)	31.1(17.2)

註 本表의 商品化率은 現金販賣, 物物交換租稅公課 및 기타(賃借料, 搗精料, 勞賃條給食, 勞賃, 利子, 教育等의 現物支出量)를 포함하고 있다.

但 括弧內商品化率은 現金 販賣量에 限한 것임.

資料：魚善善, 李進雨, 崔丙恒 其他 著「農業經濟의 基礎理論」p. 347

적은 27.1%와 12.6%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農産物價格이 農家所得에 미치는 影響은 制限되고 있으며 供給의 價格彈力性 역시 극히 非彈力的이다.

우리 나라 農業의 또 하나의 特徵은 米作農業이 그 中心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62年末現在 總耕地面積 2,079,859 町步중에서 59.30%인 1,233,289 町步가 米作을 위한 畚作이며 나머지 田作도 果樹나 菜蔬, 其他 特用作物의 栽植은 別로 發展하지 못하고 麥類가 一般的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業態別 農家戶數面에서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表 4. 種別耕地面積 (1962年末 現在)

	面積(町步)	構成比(%)
畚	1,233,289	59.30
田	846,570	40.70
計	2,079,859	100.00

資料: 經濟企劃院刊「韓國統計年鑑」1962

表 5. 業態別農家戶數 (1962年末 現在)

		戶數	構成比(%)
耕種	畚田果蔬特用作物 畜養畜產	2,018,601	81.7
		403,175	16.3
		9,220	0.4
		14,434	0.6
		4,374	0.2
畜蠶	畜養畜產	6,796	0.3
		1,292	0.0
火田		9,033	0.4
其他		2,529	0.1
計		2,469,601	100.0

資料: 經濟企劃院刊「韓國統計年鑑」1962

즉 畚作이 總農家戶數의 81%에 達하며 麥類가 主인 田作을 포함하면 實로 98%가 主穀의 生産에 從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農家收入源은 米穀과 其他 穀類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主穀의 作況에 따른 主穀價格이 農家經濟를 左

表 6. 主要農業收入源의 變化

類別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米穀	68	67	57	56	54	61	55
其他穀類	21	23	23	20	23	26	29
菜蔬果樹	8	7	14	18	16	10	12
特用作物	1	1	2	4	3	1	0
畜產物	2	2	3	2	4	2	4
農產加工	0	0	1	0	0	0	0
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 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右하고全體農産物의 價格을 支配하게 됨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穀物價格의 下落이 곧 農家經濟의 惡化로 直結되며 低穀價政策이 持續될 때 이것은 農家經濟의 피폐를 招來하는 結果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穀物은 國民의 主食이며 따라서 「인프레션」壓迫下에 있는 우리나라 物價政策上 언제나 다소의 低穀價政策이 持續될 수 밖에 없다는 點등을 考察한다면 農作物이 多樣化되지 않는 限 農家經濟의 改善이 어려울 것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셋째로 비록 灌溉施設이 相當히 擴大되기는 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農業은 아직도 天水에 依存하는 바 크며 따라서 農業生産은 해마다 큰 變動을 면치못한다. 이 事實은 해마다 農産物價格이 大幅的으로 騰落하는 要因이 된다.

네째로 우리 나라의 경우 農産物의 流通過程에는 많은 中間商人이 介在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이들 中間商人들의 活動은 消費者들이 支拂하는 價格의 相當한 部分을 빼아서 간다. 이들 部分은 때로는 農民의 販賣價格의 40% 까지 達하며 흔히 30% 를 上下하고 있다. 따라서 都賣 또는 小賣段階에서 發生하는 農産物價格上昇의 惠澤을 農民들이 充分히 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 더욱이 市場의 不完全性 小農들의 慢性的負債等으로 生産者인 農民의 受取價格은 消費者 支拂價格에 比하여 相當히 큰 格差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볼때 우리 나라 農産物價格形成의 基盤은 甚한 價格의 騰落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3. 農産物價格의 具體的 變動樣相

1. 農産物價格의 變動推移

1955年以後의 農産物價格의 推移를 보면 價格安定을 위한 가지 가지의 政策의 努力이 傾注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價格은 激甚한 起伏을 보여 왔다. 우선 農産物價格의 變動推移를 都賣物價指數面에서 보면 1957年에 이르기까지는 餘他物價에 先行하여 急激한 上昇을 보였으며 이 당시 總物價指數의 上昇에 끼친 農産物價格의 寄與率은 1956年에 47%, 1957年에 23%에 達하고 있어 農産物價格의 上昇이 物價上昇의 主因을 이루었다. 그러나 農産物價格은 1958年에는 18% 1959年에는 12.4%가 각각 前年度 보다 下落하였으며 이것은 餘他物價의 繼續的인 上昇勢에도 不拘하고 總物價指數의 上昇을 阻止시키는데 成功케 하였다. 이와 같은 農産物價格의 下落은 1957年부터 實施段階에 들어선 財政安定計劃의 遂行에 따른 緊縮政策과 秋穀의 豐作, 剩餘農産物의 導入 및 政府의 一貫된 低穀價政策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農産物價格은 1960年부터 다시 急速한 上昇趨勢로 바뀌었으며 1961年에 이르러 工業物價格指數를 上廻하기에 이르렀고 1962年에 比較的 安定相을 보였으나 1963년에는 1962年度의 凶作으로 58.5% 라는 놀라운 上昇率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을 總物價指數의 上昇率 20.6%에 대한 寄與率로 보면 45%에 達하고 있다.

表 7. 類別都賣物價指數의 變化寄與率

(1955=100)

類 別	加重值	1955年		1956年				1957年				1958年			
		指數	變動率	寄與率	指數	變動率	寄與率	指數	變動率	寄與率	指數	變動率	寄與率		
														%	%
總 指 數	1,000.0	100	131.6	31.6	100.00	152.9	16.2	100.00	143.3	-6.3	94.57				
飲 食 品	418.1	100	141.3	41.3	54.78	168.4	19.2	49.46	144.6	-14.1	-3.13				
燃 料 及 電 力	68.0	100	101.1	1.1	0.23	138.8	37.2	15.51	142.9	3.0	0.80				
鑛 產 品	10.3	100	139.7	39.7	0.15	113.7	-18.7	-1.19	108.4	-4.7	3.20				
金屬製品 及 機械	57.8	100	130.3	30.3	5.64	162.5	24.7	8.71	158.6	-2.4	-5.80				
建 築 材 料	65.1	100	120.8	20.8	4.38	134.8	11.6	4.56	143.7	6.6	2.76				
纖維 及 同製品	222.4	100	121.7	21.7	15.37	126.6	4.0	5.49	126.0	-0.5	1.17				
化 學 藥 品	56.1	100	185.1	85.1	15.11	213.2	15.1	5.23	212.7	-0.2	2.33				
紙 類	17.9	100	119.0	19.0	1.07	137.4	15.5	1.71	131.0	-4.7	-1.62				
生 立 早 及 立 早 製品	35.7	100	111.9	11.9	1.34	110.1	-1.6	-0.35	111.4	1.1	-1.28				
雜 品	62.2	100	109.8	9.8	1.93	151.2	37.7	14.47	151.7	0.3	-				
特殊 穀 物	249.4	100	159.5	59.5	46.90	183.2	14.9	22.83	150.8	-18.2	78.29				
分類 穀 物 除 外	750.6	100	122.4	22.4	53.10	142.9	16.7	77.17	141.1	-1.3	21.71				

類 別	1959年			1960年			1961年			1962年		
	指數	變動率	寄與率	指數	變動率	寄與率	指數	變動率	寄與率	指數	變動率	寄與率
總 指 數	146.7	2.4	100.00	162.5	10.8	100.00	192.3	18.3	100.00	218.0	13.4	100.00
飲 食 品	138.2	-4.5	-78.37	159.2	15.2	57.23	188.2	18.2	41.33	222.5	18.2	57.82
燃 料 及 電 力	149.1	4.3	11.34	156.6	5.0	3.14	247.1	57.8	20.47	285.2	15.4	7.81
鑛 產 品	115.9	6.9	2.96	148.5	28.1	2.67	186.2	25.4	1.43	177.6	-4.6	-0.35
金屬製品 及 機械	176.1	11.0	24.49	193.6	9.9	5.29	200.8	3.7	1.16	210.0	4.6	1.98
建 築 材 料	164.8	14.7	36.87	192.7	16.9	10.18	210.7	9.3	3.30	259.1	23.0	12.17
纖維 及 同製品	128.5	2.0	17.50	137.1	6.7	12.80	166.0	21.0	24.52	178.5	7.5	12.44
化 學 藥 品	224.5	5.5	11.83	233.1	3.8	1.97	284.6	22.1	6.77	316.1	11.0	4.60
紙 類	145.3	10.9	8.12	162.0	11.5	1.90	188.9	16.6	1.62	195.6	3.5	0.46
生 立 早 及 立 早 製品	148.2	33.0	48.08	177.2	19.5	5.44	158.8	-10.4	-2.02	150.2	-5.4	-1.43
雜 品	161.7	6.6	17.08	160.0	-1.1	-0.62	166.7	4.2	1.42	182.9	9.7	4.50
特殊 穀 物	131.4	-12.4	-129.93	157.4	19.8	44.12	195.3	24.7	33.24	207.6	6.3	11.61
分類 穀 物 除 外	151.6	7.4	229.93	164.2	8.3	55.88	191.2	16.4	66.76	221.5	15.8	88.39

資料：韓國銀行調查部刊「經濟統計年報」에 依據하여 計算하였음.

$$\text{寄與率} = \frac{\text{類別價格指數의 變化} \times \text{加重值}}{\text{總指數의 變化} \times 1,000}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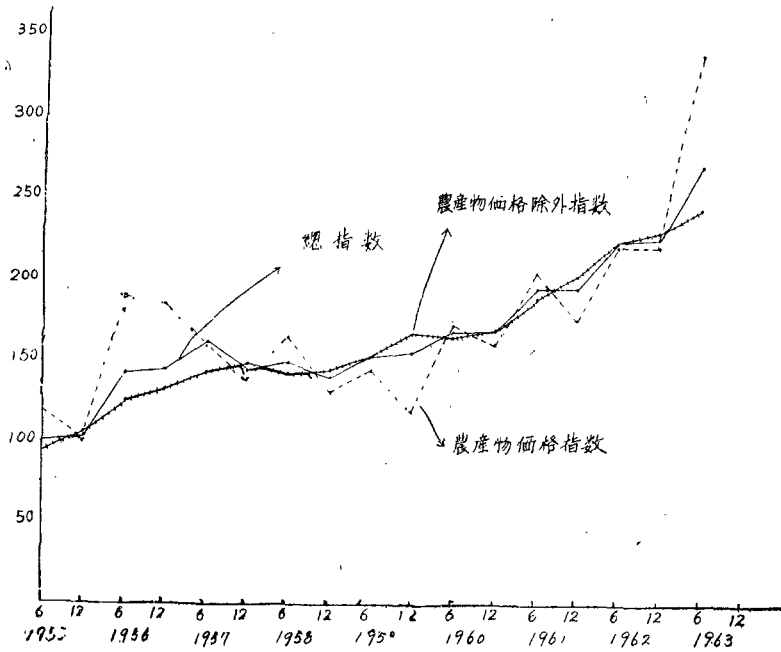
表 8. 穀物價格指數의 餘地物價指數의 變動

(1955=100)

年度別	穀物價格指數	餘他物價指數	年度別	穀物價格指數	餘他物價指數
1955 3	67.9	97.4	1957 3	188.0	143.7
6	116.4	94.2	6	212.7	142.0
9	147.1	109.8	9	178.9	143.8
12	97.4	106.1	12	137.4	144.1
1956 3	109.8	118.8	1958 3	144.9	141.3
6	188.0	124.1	6	164.2	140.4
9	198.5	124.9	9	161.0	140.5
12	183.0	130.0	12	127.0	142.7

年度別			年度別				
	穀物價格指數	餘他物價指數		穀物價格指數	餘他物價指數		
1959	3	124.9	142.4	1961	3	196.5	188.6
	6	143.0	150.4		6	203.1	189.5
	9	144.6	159.2		9	193.5	194.7
	12	117.0	165.0		12	172.0	199.9
1960	3	143.1	164.8	1962	3	189.8	218.5
	6	171.8	163.0		6	218.1	220.7
	9	172.6	167.8		9	221.0	224.9
	12	158.4	167.3		12	217.5	225.8

資料：韓國銀行調查部刊「經濟統計年報」1963



이와 같이 볼때 農產物價格은 1959年과 1960年의 兩年間을 除外하고는 대체로 其他物價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결코 不利한 位置에 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農產物價格의 季節變動은 相當히 甚하였으며 따라서 秋收期에 市販하지 않을 수 없는 農家의 경우를 想定한다면 大部分의 小農들은 年中起伏이 甚하지 않은 工產品의 購入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있었음을 意味하는 것이 된다. 즉 農產物의 季節變動指數를 보면 穀物의 경우 11月의 86.2에서 8月의 112.9에 이르는 甚한 起伏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比해서 穀物除外物價의 季節變動은 最低 99.4에서 最高 101.5에 이르는 極히 制限된 範圍의 變動相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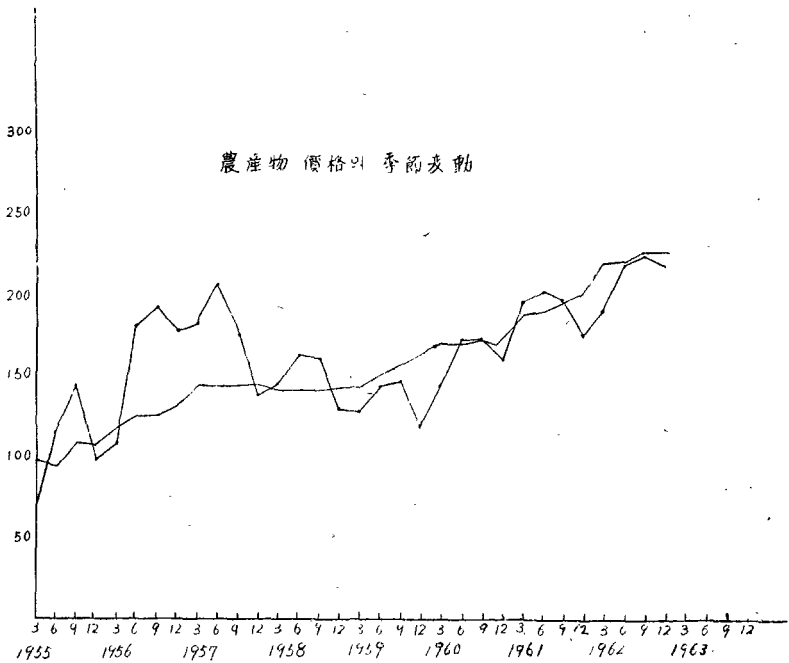


表 9. 物價의 季節變動指數.

	1 月	2	3	4	5	6	7	8	9	10	11	12
穀 物	88.2	92.5	94.5	99.3	108.7	111.3	111.9	112.9	110.9	96.7	86.2	86.4
穀物除外	100.1	100.3	100.5	99.8	99.5	99.4	98.7	99.7	100.5	101.5	100.4	99.4

資料：韓國銀行調查部刊「物價의 季節變動圖表輯」.

2. 類別農産物價格의 變動推移

㉑ 穀 物

穀物은 韓國銀行都賣物價指數編製에 있어서 約 25%의 웨이트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騰落은 總物價指數에 相當히 큰 影響을 끼치고 있다. 特히 그중에서도 米穀은 穀物中에서 80%의 比重을 占하고 있을 뿐 아니라 國民의 主食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農産物價格政策은 거의 全의으로 米價의 適正水準에서의 安定이라는데 두어졌다. 이와 같은 穀物價格의 變動을 보면 1956年에 59.5% 1957年에는 14.9%가 각각 騰貴하였으나 1958年에는 18.2%가 1959年에는 다시 12.4%가 下落하였고 1960年에 들어쓰면서 다시 上昇趨勢를 그려 1961年과 1963年에는 暴騰相을 보여 國民의 食生活을 크게 威脅하였다. 米穀, 麥類, 雜穀은 食糧으로서의 相互代替補充性이 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단지 豆類는 副食用으로 消費되는 것임으로 1958年에 限해서 若干의 下落을 보였을 뿐

繼續的인 上昇趨勢를 보였으나 그 騰幅은 餘他穀物 보다 적은 것이 特徵이다.

表 10. 穀物別 都賣物價指數 (1955=100)

年度別	穀物	米穀	麥類	雜穀	豆類
1955	100.0	100.0	100.0	100.0	100.0
1956	159.5	159.8	167.8	178.6	120.1
1957	183.2	181.3	203.5	214.4	146.3
1958	150.0	149.4	158.7	161.3	130.6
1959	131.4	131.9	125.0	112.4	147.8
1960	157.4	155.9	158.4	151.7	186.3
1961	195.3	192.2	215.5	219.1	186.7
1962	207.6	201.4	246.2	233.6	197.0

資料：韓國銀行調查部刊「韓國銀行統計年報」1962

우리 나라 穀物の 需給事情을 보면 需要量에 대하여 國內供給量은 해마다 相當한 不足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언제나 穀價暴騰의 壓力을 加하고 있다는 點에 注目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1958年과 1959年의 穀價下落은 剩餘農産物의 導入에 그 主因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때 外穀導入은 1957年까지 物價의 先導의 役割을 하던 穀價를 抑制케 하는데 寄與하였으며 이것이 또한 物價安定에 크게 貢獻하였음은 勿論이다. 그러나 需要量에 비춘 國內供給量의 不足은 如前히 穀價上昇의 底力을 지니고 있었으며 1959年에 剩餘農産物의 導入이 大幅 減少되자 1960年에 穀價는 다시 騰貴하기 始作하였으며 1960년에는 19.8% 1961년에는 24.7% 1962년에는 1961年 秋穀의 異例的인 豐作에도 不拘하고 6.3%의 上昇을 나타내었고 1962年産秋穀의 凶作으로 1963年度에는 58.5%의 暴騰을 보여 未曾有的 穀價波動을 나타내었음은 이와 같은 事情을 說明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때 穀物の 供給增大가 穀價를 低落시키지는 못하고 다만 穀價의 騰貴率을 弱化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美剩餘農産物을 主로 한 外穀의 導入이 없었다면 穀價의 暴騰을 招來하여 國民의 食生活을 크게 威脅하였을 것이다. 勿論 外穀의 導入으로 穀物價格의 安定을 企圖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農業의 成長이나 經濟發展을 가져오는 經濟安定이라고는 할 수 없다. 穀價의 安定은 農業生産力의 增大를 뒷받침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正當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表 11. 糧穀年度別 需給實績

(單位：千石)

年度別	國內需要推算量	國內供給量	導入實績	總供給量
1954	25,484	24,084	1,406	25,490
1955	24,290	23,713	577	24,290
1956	27,878	24,785	3,093	27,878
1957	27,444	21,126	6,318	27,444
1958	31,735	25,270	6,465	31,735
1959	30,114	29,827	1,890	31,717
1960	31,822	28,850	3,512	32,362
1961	31,143	31,810	1,569	33,379
1962	33,232	31,010	3,689	34,691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여기에서 우리는 穀價의 季節變動의 幅이 얼마나 激甚한가를 考察할 必要가 있다. 오히려 現段階로서 農家所得의 增大 및 農村經濟의 向上을 위하여서는 穀價의 平均水準의 上昇 보다도 年間을 通한 價格變動의 季節幅을 어떻게 緩和시키는가에 보다 더 重要性이 놓여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秋收期가 3,4個月 지난뒤에 일어나는 價格의 暴騰은 一部 大農 및 中間商人의 利益에 歸屬될 뿐 大多數의 農民의 所得增加와는 아무런 關聯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米穀 및 麥類의 季節變動을 보면 表 12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쌀은 84.0에서 117.2에 이르는 變動幅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리쌀은 90.2에서 120.6, 콩은 88.8에서 108.1의 變動幅을 나타내고 있다.

表 12. 穀物 季節變動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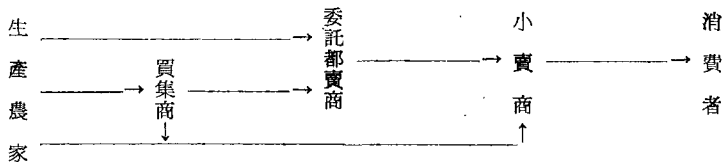
月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쌀	85.5	89.7	91.5	96.6	107.6	113.5	116.0	117.2	115.5	97.3	84.9	84.0
보리쌀	100.1	103.4	107.0	114.5	120.6	100.0	90.6	90.2	87.6	96.2	93.1	96.9
콩	95.3	103.2	104.2	107.5	108.1	105.8	101.5	100.5	100.7	88.8	91.7	92.3

資料：韓國銀行調查部刊「物價의 季節變動圖表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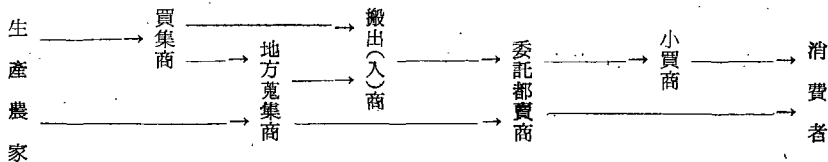
穀物의 季節變動과 關聯해서 또 하나의 問題가 되는 것은 이의 流通過程이다. 대체로 農民은 市場에 대하여 正確한 情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價格決定에 있어 中間商人의 影響力이 相當히 크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穀物의 流通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農協組織을 通하는 經路는 僅少하며 大部分이 1,2의 流通經路를 取한다. 이때 이 流通經路中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委託都賣商이며 이들이 搬出入事情을 考慮하여 價格決定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市況의 움직임에 따라 騰落의 幅을 增大시키는 作用을 할 餘地는 相當히 많다.

穀物의 流通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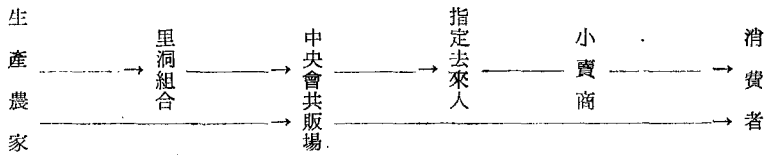
1. 都市近郊의 流通經路



2. 地方都市間流通經路



3. 農協組織을 通하는 經路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

⑥ 菜蔬類

菜蔬類는 肉類의 消費가 낮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重要な 副食品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部分의 農家は 自家消費를 위한 菜蔬의 栽培에 그치고 있으며 主로 都市近郊에서 都市民에 대한 菜蔬供給을 위한 栽培가 比較的 大規模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菜蔬價格의 形成에 影響을 끼치고 價格에 의하여 生産의 增減을 가져오는 것은 商品化를 目的으로 하는 이들 都市近郊의 菜蔬生産인 것이다.

이와 같은 菜蔬價格의 움직임을 農產物農家販賣價格指數面에서 보면 1960년에는 比前年 29.7%의 價格上昇을 보였으나 1961년에는 10.5%가 反落하였으며 1962년에는 다시 33.8%가 上昇하였다. 따라서 1962년까지에는 菜蔬類의 價格은 年間 約 20%씩 繼續 騰貴하여 온 餘他農產物價格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低位에 머물렀다. 여기에서 특히 注目할 것은 대부분의 菜蔬價格들이 1年 내지 2年의 間隔을 두고 甚한 起伏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菜蔬中 가장 比重이 큰 배추 무우의 경우 이와 같은 現象은 平穩하며 例外的으로 繼續的인 上昇趨勢를 밝어온 것은 米나리 하나에 不遇하다. 이것은 菜蔬類에 있어서는 供給의 價格彈力性이 穀物에 比하여 훨씬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대개의 경우 前年度의 價格上昇은 다음해의 當該 菜蔬의 植付面積의 擴大를 招來하고 이것은 供給增大를 通하여 다음해의 價格下落을 招來하는 것이 普通이다. 단지 1963년에 菜蔬價格이 前年의 上昇에 이어 全般的으로 前年보다 다시 2倍의 上昇率을 보인것은 異例的인 現象이었다. 이것은 1963년에 米穀을 先導로 穀物價格 및 其他 全般的인 物價의 騰貴가 一般化한 위에다가 菜蔬類의 收穫量역시 低調하였던데 基因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菜蔬는 長期的인 保管 및 輸送性能이 低位이기 때문에 流通經路는 短縮되지 않으면 안되며 中間都賣商의 介入의 餘地가 다른 農物產에 比하여 훨씬 적다. 따라서 流通過程에서의 價格操作의 餘地도 크게 制限되어 있다. 이것은 菜蔬가 純粹한 自由競爭을 通하여 市場價格이 形成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固有的 商品性格 때문에 需給의 時期的 地方的인 偏倚를 가져와 價格의 地方的 格差와 時期的 變動을 招來하기 쉽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表 13. 菜蔬農家販賣價格指數

	채소	무우	배추	양배추	파	양파	마늘
19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0	127.7	121.1	127.4	102.6	95.3	112.5	71.9
1961	104.4	96.1	101.7	99.1	77.3	98.2	34.8
1962	139.7	122.4	90.0	109.7	142.8	192.7	90.9
1963	272.4	189.1	143.3	158.1	188.2	297.0	303.7

	고추	오이	미나리	시금치	호박	도마도	참외	수박
19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0	206.3	82.1	117.2	91.8	133.7	189.2	100.0	95.5
1961	178.9	79.9	137.2	101.7	121.2	167.4	84.1	105.5
1962	191.6	145.0	182.3	123.9	205.4	213.9	273.5	133.9
1963	452.3	200.1	234.4	171.3	247.8	428.1	283.8	234.6

表 14. 菜蔬生產量

	무우		배추		양배추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1957	36,467	128,648	36,278	115,873	1,156	4,746
1958	32,755	104,613	30,559	95,029	1,118	4,301
1959	33,177	95,732	31,131	82,496	1,275	9,569
1960	34,213	104,557	31,684	88,820	1,269	6,717
1961	35,507	122,587	32,590	104,480	1,043	5,001
1962	35,797	122,664	33,706	112,515	904	5,683

	파		양파		마늘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1957	2,662	6,538	2,541	8,545	5,541	6,306
1958	2,751	6,898	2,268	8,167	6,183	7,393
1959	1,907	5,005	2,649	10,306	5,427	7,023
1960	2,406	6,233	2,628	10,182	6,632	8,501
1961	1,647	4,440	2,419	7,380	7,465	8,695
1962	2,168	5,826	1,665	5,824	7,869	10,442

	고추		오이		도마도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1957	13,495	7,815	3,007	7,769	797	2,234
1958	13,079	8,806	3,329	8,448	857	2,420
1959	12,300	7,047	3,053	7,196	788	1,864
1960	14,208	5,566	3,164	7,783	1,018	3,024
1961	14,854	9,898	2,784	6,672	1,103	3,232
1962	16,461	9,322	3,195	7,705	1,067	3,493

	시금치		호박		참외		수박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1957	1,324	2,641	3,225	11,038	2,883	6,653	1,063	2,731
1958	1,331	2,742	3,007	8,018	3,504	7,648	1,316	3,520
1959	1,190	2,108	2,763	7,278	3,206	6,900	1,425	3,884
1960	1,115	2,086	2,654	6,839	3,849	8,873	2,550	7,881
1961	1,080	2,243	2,851	7,934	4,095	9,903	2,351	6,870
1962	1,147	2,459	19,819	26,356	4,393	10,871	2,441	8,521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 果 實 類

果實類價格指數는 菜蔬價格指數와는 달리 1959年 以來 별로 起伏을 나타내지 않고 繼續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間의 上昇率은 다른 穀物에 比하여 低位에 있다. 1960年에 比前年 16.7%가 騰貴한 果實價格이 1961년에는 1960年과 거의 同一水準에서 安定 되었으며 1962年에 다시 比前年 24.5%나 上昇된 것은 우리 나라 果實중에서 가장 比重이 큰 사과가 1961年 收穫이 凶作이었던데다가 1962年에 大量輸出되어 그 價格이 크게 騰貴한 데 그 原因이 있었다.

우리 나라 果實의 大宗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 배의 價格이 1959年 以來 꾸준히 上昇하고 있음에 比하여 감, 포도, 복숭아 等은 相當한 起伏相을 보였다. 이것은 사과 및 배의 生産이 거의 全部 農場生産이며 따라서 生産者가 價格決定에 相當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으며 年間을 通하여 保管이 可能하고 同時에 近年 需要가 繼續上昇하고 있음에 比하여 이것이 比較的 10年~20年에 걸친 長期投資라는 면에서 이의 短期的인 供給增加가 不可能하다 는데 그 緣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 복숭아의 경우 大部分이 農家의 散發的 生産이며 또한 年中 保管할 수 없으며 그 需要의 成長 역시 사과, 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價格은 收穫의 豐凶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고 있다. 다만 포도의 경우 價格이 1962年까지

表 15. 果 實 類 農 家 販 賣 價 格 指 數

	果實類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19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0	116.7	121.2	117.9	94.6	83.2	86.5
1961	117.9	128.9	121.4	105.4	94.6	83.9
1962	146.8	160.0	148.1	64.8	85.4	108.4
1963	159.1	154.0	158.9	203.9	108.8	1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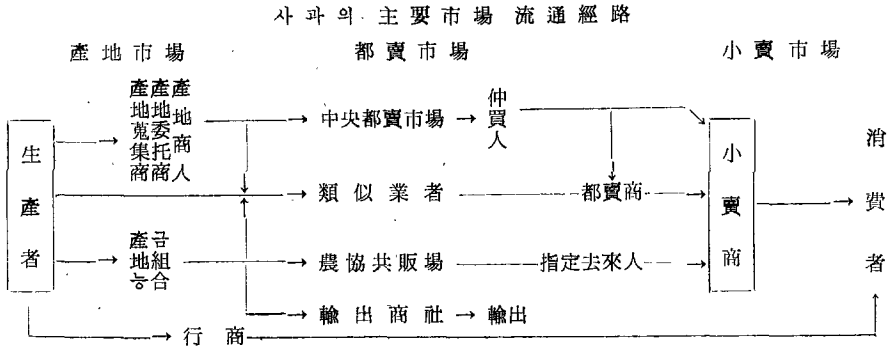
表 16. 果 實 生 產 量

	사과		감		배		포도		복숭아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1957	8,797	16,154	2,681	3,563	4,608	7,811	462	775	2,897	4,354
1958	10,970	22,028	2,619	4,219	4,580	7,998	533	893	2,721	3,953
1959	11,908	27,738	2,505	3,531	4,515	6,924	493	913	2,704	3,934
1960	11,467	27,747	2,381	3,611	4,288	7,152	599	965	2,605	3,668
1961	11,505	20,591	2,365	3,538	3,970	7,976	826	1,493	3,335	5,259
1962	11,571	31,405	2,598	4,425	3,742	7,365	1,152	1,999	3,386	5,238

資料 : 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1959年에 比하여 顯著히 低位에서 維持되었으며 1963年에 比前年 23.8%가 上昇하였으나 1959年에 比하여 不過 8.8%가 騰貴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最近 數年間에 포도의 栽培面積이 급격히 增加되어 이의 收穫量이 1962년에는 1959年の 2倍로 增加된데 그 原因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果實의 경우 價格의 供給彈力性은 아주 작다.

한편 果實의 流通經路는 다음 表에서 볼 수 있는 사과와의 主要市場流通經路와 大同小異하다. 여기에서 價格形成은 主로 中央都賣市場에서 이루어진다. 果實이 이와 같은 流通經路를 거쳐가는 동안 流通費用의 合計額은 小賣價格의 40%를 넘고 있으며 生産者受取額은 50%를 약간 넘는데 不遇하다.⁽¹⁾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

① 特用作物

特用作物價格은 1959年以來 1962年에 이르기까지 그 上昇率은 여러 農產物群中에서 가장 低位에 머물렀다. 1962年에 비로서 比前年 25%의 上昇을 보였으며 1963年에도 이어 31%의 上昇을 나타내었다.

特用作物중에서 棉花, 大麻, 苧麻等은 그것이 우리 나라 傳來의 纖維原料이긴 하나 纖維에 대한 消費 기호의 變動으로 이들에 대한 需要는 별로 크지 못하며 또한 棉花의 경우 剩餘農產物로 棉花가 大量導入되었기 때문에 政策的인 支援에 의하여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음에 不遇하다. 葉煙草는 國家의 專賣事業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收穫量이 繼續增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價格도 繼續 上昇하여왔다. 그러나 主로 輸出에 市場을 求하고 있는 人蔘, 薄荷等은 國際市場價格의 低落으로 暴落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特用作物은 그 需要가 不安定하며 生産增加는 그대로 價格의 暴落으로 이끌어갈 可能性이 많다. 이것은 이들 特用作物이 價格支持政策이 뒤따르지 않는 限 育成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表 17. 特用作物 農家販賣 價格指數

年度別	特用作物	棉花	大麻	苧麻	참깨	葉煙草	人蔘	薄荷
19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0	105.2	120.5	139.8	118.3	94.5	104.0	74.3	83.6
1961	103.8	124.7	130.6	121.0	92.7	121.1	50.9	79.5
1962	128.3	152.1	145.1	99.6	99.4	139.6	51.2	121.5
1963	160.8	179.3	155.4	139.1	171.5	163.7	51.9	//

(1) 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사과, 배 市場流通過程」p.48

表 18. 特用作物の生産実績

單位：面積…町歩
收穫…貫

年度別	棉花		大麻		苧麻		참깨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1957	77,568	49,902	8,993	1,764	1,388	141	4,981	14
1958	56,547	37,545	9,478	1,801	1,550	199	6,035	19
1959	60,844	40,921	9,510	1,826	1,516	197	5,781	19
1960	50,826	31,649	8,067	1,504	1,692	227	5,762	18
1961	49,030	45,898	7,286	1,528	1,303	185	7,248	25
1962	32,282	29,362	7,149	1,524	1,442	221	8,057	27

年度別	葉煙草		人蔘(註①)	薄荷	
	面積	收穫量		面積	收穫量
1957	21,486	26,949	2,675	859	117
1958	21,060	27,873	2,208	1,354	785
1959	20,397	28,795	2,449	2,501	1,419
1960	20,083	28,161	2,571	1,595	1,350
1961	20,164	31,530	5,653	4,719	5,915
1962	22,532	35,024		8,545	470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註 ① 官營製造実績

㉔ 畜産物

畜産物價格은 1959 年에서 1962 年에 이르기까지 다른 價格群에 比하여 가장 그 騰貴率이 높았다. 卽 1959 年以來 年間 約 20% 의 上昇率을 持續하고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畜産物의 需要가 緩慢하나마 繼續的으로 上昇하고 있음에 比하여 畜産物의 供給增加가 이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甚한 昂騰率을 보이고 있는 蠶繭, 肉牛, 肉豚의 경우를 보면 繼續的인 價格上昇에도 不拘하고 産繭量은 1960 年 및 1961 年에는 1959 年보다 오히려 減産되고 있으며 1962 年에 겨우 1959 年의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牛, 豚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飼養頭數는 1962 年에 이르러 비로서 增加를 보였으며 1958 年에서 1961 年에 이르기까지 거의 同一水準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蠶繭이나 牛, 豚의 供給이 價格上昇에 의하여 逐次적으로 影響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肉牛의 경우 그 大部分이 役畜用이기 때문에 價格騰落에 敏感치 않으며 肉豚은 役畜用은 아니나 農家의 單純한 零細 및 小規模의 副業의 飼育이 大部分이어서 역시 價格에 敏感치 않다. 그러나 닭의 경우 1960 年에 계란價格의 下落은 1961 年에 飼育鷄首의 減少로 나타났으며 1961 年의 價格의 回復이 그대로 養鷄數의 增加로 波及하고 있음을 보아 價格에 대한 供給彈力性이 다른것 보다 크다. 이것은 養鷄業의 大部分이 아직도 家庭에서 副業的으로하는 數가 많기는 하나 그래도 全體의 約 30% 가 가까이 養鷄業을 專業的으로 하고 있어 다른 어느 家畜에 比하여도 그 飼育이 가장 企業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鷄卵生産費의 81.5% 가 飼料費이며 飼料費의 97.6% 가 購入飼料에 依存하고 있고

豚肉生産費中 飼料費가 62.5%이며 그중 購入飼料가 75.5%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飼料價格의 變動은 이들 畜産業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畜産物 및 飼料값指數의 變動을 보면 飼料값은 畜産物價格에 比하여 最近 2.3年間に 거의 2倍 以上の 騰貴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畜産物의 꾸준한 價格上昇에도 不拘하고 이들 畜産物의 供給이 增大되지 않는 主要原因의 하나가 되어 있다.

表 19. 畜産物 및 飼料값 指數의 格差

畜産物	1960. 1	1962. 12	飼料	1960. 1	1962. 12
肉 豚	100	147	米 糠	100	193
肉 牛	100	145	麥 糠	100	232
鷄 卵	100	135	밀기울	100	193

表 20. 畜産物農家販賣價格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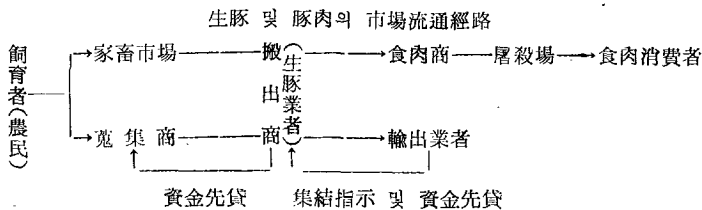
年度別	畜産物	蠶 繭	肉牛(牝)	肉 豚	肉 鷄	계란	토끼
19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1960	122.0	121.5	132.1	104.2	102.2	99.3	79.7
1961	137.8	159.6	148.0	119.0	108.4	107.1	69.4
1962	161.3	184.5	159.6	168.7	121.8	125.9	146.4
1963	164.7	206.3	168.3	160.1	137.8	150.6	94.1

表 21. 家畜飼養頭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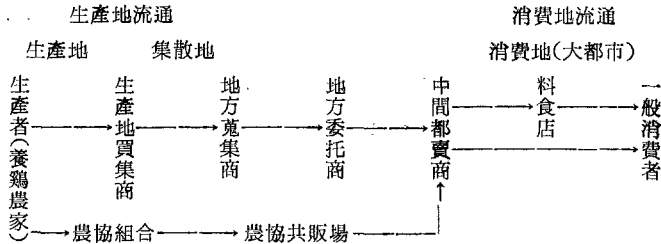
年度別	産 繭 量 (千貫)	牛 (千頭)	豚 (千頭)	鷄 (千首)	토끼 (千頭)
1957	1,534	967	1,233	9,351	250
1958	1,512	1,001	1,324	9,893	296
1959	1,460	1,021	1,438	12,041	595
1960	1,226	1,011	1,397	12,030	791
1961	1,301	1,097	1,255	11,218	748
1962	1,471	1,255	1,671	13,046	1,316
1963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더구나 이와같은 畜産物飼育의 零細性으로 價格形成에 있어서 生産者의 機能은 極히 制限되어 있으며 時勢나 秤量에 대한 農家의 無知에 따라 小賣價格에 대한 生産者의 受取率은 50% 程度의 低率이며 또한 市場價格에 의한 負擔의 變動은 그대로 農家に 轉嫁된다.



닭의 市場 流通 經路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

4. 우리나라 農產物價格政策의 推移와 批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農產物도 하나의 商品으로서 自由로히 生産販賣되고 利潤追求를 基本으로하여 主로 需要供給의 法則에 따라 價格이 形成된다. 이 點에 있어서 農產物도 一般工產品과 다를것이 없다. 그러나 農產物은 그가 가지는 몇가지 特殊性으로해서 그 價格形成에 있어서 特殊한 政策의 考慮의 對象이 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農產物價格政策은 다음과 같은 目的을 達成하려는 것이 된다.

첫째로 農產物價格을 適正水準에 安定시키는 것이다. 農產物價格의 激甚한 變動은 消費者나 生産者에게 결코 아무런 利益도 가져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農業增產을 沮害하는 主된 要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農產物價格의 季節變動을 緩和시키고 作況에 따른 價格의 年度別 暴騰 또는 暴落을 되도록 좁은 範圍에 머물도록하는것이 農產物價格政策의 第一次의 目標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農產物의 適正價格水準을 保障하는 制度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價格을 너무 嚴格하게 固定시키는 것은 所望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需要가 變化함에 따라 生産도 徐徐히 調節될 수 있는 誘因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農產物價格이 調節되지 않은채 放置된다면 後進國의 農業生産物의 價格은 大幅의 變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農業生産의 季節性과 年年의 生産水準의 變動, 投機行爲 등이 그 主因인 것이다. 이 結果 生産者와 消費者의 實質所得은 甚한 起伏現象을 되풀이하게 된다. 따라서 價格의 振幅이 合理的인 限界內에 維持된다면 雙方이 모두 利益이 될 것이다. 더구나 恒常 「인프레션」 壓力을 받고 있는 發展途上의 經濟에서는 農產物價格을 安定시켜 生計費를 抑制하고 이로써 「인프레션」을 克服하려는 것이 農產物價格政策의 主要 目標의 하나인 것이다.

둘째로 農產物價格의 安定은 窮極的으로 農業生産의 增대를 뒷받침으로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價格이 長期的으로 生産費以下로 떨어진다 것은 결코 所望스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農產物價格政策의 또 하나의 目標은 農產物價格의 最低下落線을 提供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生産者價格의 保障은 生産意欲을 높이고 農家所得을 保障向 上시키는데 寄與할 것이다.

셋째로 國內主要經濟農作物에 對한 價格政策은 農業을 多樣化하고 特用作物의 生産을 增加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넷째로 農產物價格政策에서 考慮하여야 할 對象은 農產物의 流通經路를 改善하여 生産者들이 公平한 待遇를 받도록하며 消費者支拂價格中 보다 많은 部分이 生産者에게 歸屬되도록하는 것이다.

上記한 目的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農產物價格政策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觀點에서 考慮되어 왔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農業生産의 大宗이며 國民生活에 不可缺한 食糧이 되는 穀物價格을 安定시키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棉花, 蠶繭, 薄荷 等 一部 工業用 및 輸出用 特用作物의 保護育成을 위한 買上政策이었다. 그러나 慢性的인 「인플레이션」下에서 實施된 農產物價格政策은 主로 生計費를 安定시키고 餘他物價의 上昇壓力을 緩和시키기 위하여 穀物價格을 되도록 低水準에 安定시키려는데 그 目標가 두어져왔음은 不可避한 것이었다. 따라서 政府의 政策은 買上 또는 現物稅 및 外穀의 導入等으로 適切한 管理糧穀을 確保하고 이를 通하여 市場穀價를 調節하려는 것이었다.

즉, 6.25 動亂을 契機로하여 食糧事情은 極度로 惡化되었으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莫大한 軍糧米와 南下避難民救護糧穀의 確保가 緊急하였다. 더구나 1951~52 兩年은 大凶作이었으며 年間 4~5 百萬石의 管理糧穀의 買上을 위한 資金放出은 「인플레이션」을 激化시키는 主因의 하나였다. 事實 1951 年과 1952 年에 穀價는 類例없는 暴騰相을 보여 다른 모든 物價上昇에 先行하였다. 이와같은 事情下에서 農地改革에 의한 地價償還穀만으로는 緊急需要에 應할 수 없었으며 1951 年 9 월에 臨時土地收得稅法을 制定公布하여 土地收益에 대한 租稅를 現穀으로 納付토록 措置하였다. 이로써 1952~53 年에는 一般買上을 中止할 수 있었고 政府保有 弗로서 莫大한 糧穀을 輸入하였으며 救護糧穀과 民間糧穀導入도 늘어 穀價를 低落시키는데 一旦 成功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諸施策이 價格上昇을 抑制하는데는 寄與하였으나 地價償還穀 및 土地收得稅納付의 過重한 負擔에다가 導入糧穀으로 因한 價格下落은 農民에게 二重의 損失을 끼쳤으며 農村經濟를 壓迫하는 것이 되었다. 그 結果 政府는 1953 年에 秋穀의 一般買上制를 다시 實施하였으며 同年의 買入價格이 時價보다 有利하여 買上實績은 目標量을 上廻하였다. 그러나 1955 年 4 月 春窮期를 契機로 穀價는 다시 暴騰하기 始作하였으며 政府는 이를 抑制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를 비롯한 其他 重要都市에 穀價調節米를 放出하였다. 다시 1956 年度 秋穀生産이 平年作보다 1 割의 減産이었음으로 1957 年에는 立稻先賣防止策과 아울러 米穀豫買制를 實施하였으나 買上價格이 時價에 比하여 低位에서 決定되었으므로 그 成果는 不振하였으며 剩餘農產物과 民間輸入으로 230 萬石을 導入하여 管理糧穀의 不足을 補充하였고 55 萬石을 穀價調節용으로 放出하였다. 이와같은 施策이 1957 年에 穀價上昇率을 14.9%로 緩和시키는데 寄與하였다. 1958 年에는 秋穀이 平年作보다 增收되었으며 前年度의 移越糧穀 및 剩餘農產物의 大量導入으로 穀價는 急激히 下落하였다. 그

리하여 1958년에 처음으로 出廻期の 大量放賣로 인한 穀價暴落과 春窮期以後의 穀價의 年間을 통한 平準化를 目的으로 米穀擔保融資制가 實施되었다. 이와같은 米穀擔保融資制의 實施는 確實히 一般買上制에 比하여 發展된 施策이었으며 1958年 및 1959年의 穀價低落時에 比較的의 効率으로 實施되어 秋收期の 穀價暴落을 다소 緩和시키는데 寄與하였다.

그러나 1960년에 들어서 剩餘農産物의 導入이 減少되고 거기에 4.19革命으로 인한 政治的 社會的混亂이 加勢하여 穀價는 다시 急激한 騰勢를 나타내었다. 이때 政府는 이를 抑制하기 위하여 67萬石의 穀物을 都市에 放出하였으며 이로써 穀價의 暴騰은 다소 抑制되었다. 그러나 1961年 春窮期에 이르러 穀價는 다시 上昇하기 始作하였으며 5.16 軍事革命後에도 上昇勢는 繼續되었으므로 政府는 1961年 11月 9日 「物價調節에 관한 臨時措置法」을 公布하여 米穀과 大麥價格을 1961年 5.16前價格으로 固定시키는 直接的인 價格統制策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最高價格制을 維持하기 위하여 補完策으로 需給調節用 및 國土建設勞賃條約 100萬石의 管理糧穀을 放出하였다. 이와같은 價格統制는 1961年産秋穀의 大豐作으로 1962年에는 比較的의 順調로 維持되었다. 그러나 1962年産秋穀이 凶作이 됨에 따라 1963年初부터 穀價는 強騰勢를 보이게 되었으며 穀價는 事實上 統制價格을 上廻하여 去來되기 始作하였고 政府의 強力한 團束은 한때 米穀의 品賣現象을 招來하였고 價格은 더욱 暴騰하였다. 이와같은 事情下에서 事實上 統制價格의 維持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剩餘農産物 및 政府保有 弗에 의한 糧穀의 緊急導入으로 可能的 限의 調節米放出을 通하여 이에 對處할 수 밖에 없었다.

表 22. 政府管理糧穀需給實績

(單位: 千石)

需、要、量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軍 糧	1,309	1,438	1,307	1,330	1,238	1,139
公務員食糧	1,775	298	—	14	4	—
警察給食用	17	—	—	—	—	—
救護糧穀	134	—	148	119	184	188
官營施設用	36	—	36	30	44	55
罪囚留置人用	40	42	40	54	53	73
種子用	77	46	4	2	3	3
貸與糧穀	332	281	128	—	221	351
需給調節用	546	268	160	667	510	1,235
國土建設	—	—	—	—	523	—
其他	—	—	62 ⁽¹⁾	—	168 ⁽²⁾	—
計	4,267	2,374	1,886	2,215	2,950	1,235

註 ① 飼料 및 加工用임

② 輸出用임

供給量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前年度移越量	368	275	2,475	2,603	972	763
秋穀收納量	1,046	1,122	1,163	974	975	—
夏穀收納量	350	485	412	321	454	—
一般買入	937	—	—	—	—	2,289
肥料外上回收	—	73	—	—	—	—
擔保米買入	—	—	497	—	—	—
導入糧	2,334	2,413	288	—	—	—
1958年豫買未清算分	—	16	—	—	816	389
計	5,037	4,391	4,835	3,829	3,218	3,441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이와같이 불래 政府의 穀價政策은 穀價의 暴騰을 抑制하고 이로써 餘他物價의 上昇을 또한 견제하여 消費者를 高物價로 부터 保護하려는데 基本的인 政策目標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達成하는 手段으로서 現物稅 및 買上制 및 剩餘農産物의 導入을 通하여 管理糧穀을 確保하고 價格上昇時에 이를 都市消費者에게 放出하는 方法을 擇하였다. 그러나 政府의 買上 및 收納價格은 언제나 秋收期의 時價보다도 低水準에서 策定되었기 때문에 收納實績은 恒常 目標量을 達成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需給調節用으로 使用될 수 있는 管理糧穀은 充分치 못하였고 調節米의 放出은 언제나 所期의 價格安定을 達成시키는데는 充分치 못한 것이었다. 더구나 해마다 莫大한 外穀의 導入이 不可避한 慢性的인 食糧不足狀態下에서 秋收期의 最低價格을 保障하려는 政策的인 努力은 별로 重要な 意味를 갖지 못 하였었다. 즉 1958年과 1959年의 價格低落時에 米穀擔保融資는 價格暴落을 沮止시키는데 成功하였으나 1960年以後에는 融資條件이 크게 改善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目標를 達成치 못하였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穀價政策은 消費者價格을 安定시켜 「인플레이션」을 抑制하는데 있어 다 소의 寄與를 하였음은 勿論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穀價政策의 根本的인 缺陷은 農産物價格의 安定化를 단순히 인플레이션壓力을 緩和시키기 위한 手段으로서 活用하는데 그치고 農業生産性의 向上을 通한 農産物增産을 별로 考慮에 넣지 않았다는 데 있다. 慢性的인 糧穀不足狀況下에서 穀價의 安定은 窮極的으로 食糧增産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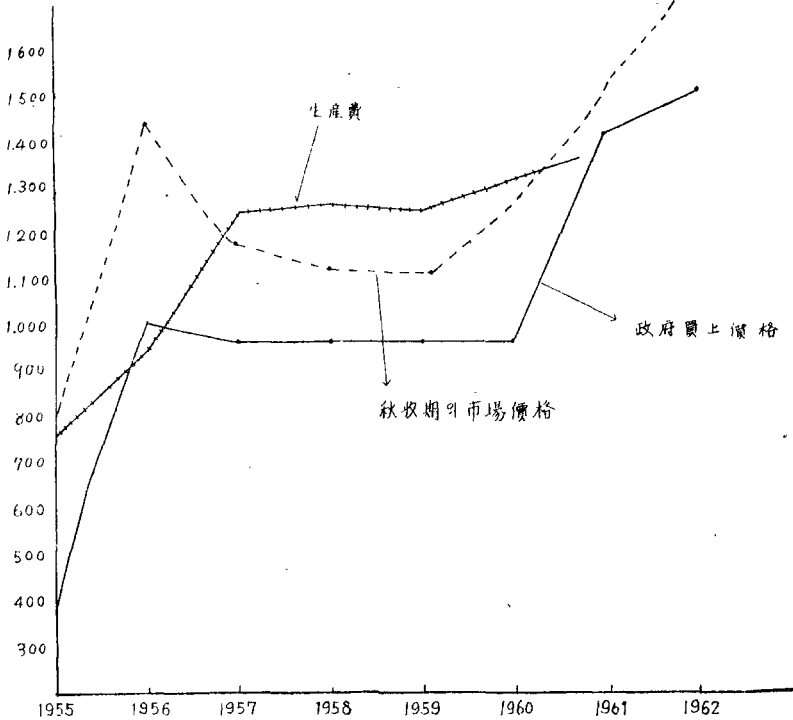
表 23. 食糧消費量 對 外穀導入量

年度別	食糧總消費量 (A)	外穀導入量 (B)	B/A(%)
1955	24,290	577	2.4
1956	27,878	3,093	11.1
1957	27,444	6,318	23.2
1958	31,735	6,465	20.3
1959	30,114	1,890	6.2
1960	31,822	3,512	11.0
1961	31,143	1,569	5.0
1962	33,232	3,689	11.1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刊「농업연감」1963

價의 安定은 해마다 莫大한 外穀의 導入으로서만 어느程度 維持될 수 있었다. 그러나 剩餘 農產物의 導入이 秋穀收穫量이 決定된후 그不足量을 供給한다는 原則으로 해서 그導入이 適期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大部分이 있으며 政府外貨事情역시 自力에 의한 充分한 食糧導入을 許容치 아니하였음으로 穀價는 恒常上昇壓力을 그대로 지니고 있게 마련이었다. 더구나 秋收期에 零細小農家의 大部分이 그들의 生産物을 市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端境期의 價格暴騰을 더욱 격화시키는 要因이 되어있다. 秋收期의 價格이 生産費以下로 下落하였다가 春窮期에 市場價格이 暴騰하는 것은 그 利益의 大部分을 富農 및 中間商人에 歸屬시키는 結果가 되며 零細小農의 경우 그들의 生産意欲을 刺戟하고 穀物增産을 誘發하는데 크게 寄與치 못할것이다. 더구나 長期的으로 生産費以下로 買上價格을 策定하거나 秋收期의 市場價格이 形成된다면 人口 및 所得의 增加에 따른 需要增加에 따를 수 있는 供給增大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穀物價格政策은 적어도 長期的으로는 生産費를 補償하고 供給增加를 誘發할 수 있는 水準에서 決定되어야하며 이의 安定的인 維持에 그 焦點이 두어져야 된다.

米穀의 生産費 政府買上價格 및 秋收期市場價格의 比較



5. 結 論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農產物價格形成의 바탕과 그 具體的 變動樣相에 대한 分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 ① 우리나라 農業은 主穀偏重의 生産樣態를 그 하나의 特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主穀

生産의 增減이 農産物價格의 움직임을 支配하고 있으며 農産物價格政策은 第一次的으로 主穀價格의 安定化에 두어지고 있다.

② 우리나라 農業은 零細經營을 또하나의 特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農産物價格形成에 있어서는 秋收期의 大量出廻 및 春窮期의 零細農家의 不足食糧購入等으로 價格下落과 價格上昇의 幅을 激化시키고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 農産物價格의 季節變動은 相當히 甚하다.

③ 우리나라 農業生産은 아직도 自然條件의 變動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고 있다. 이것은 그 해의 作況의 如何가 農産物價格變動에 크게 影響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過去 10餘年間 年間을 통한 農産物價格의 平均水準은 1959—60 兩年을 除外하고는 工産物價格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결코 不利한 位置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秋收期에 農産物價格은 暴落함으로 이때 農産物을 販賣하게 되는 零細農家は 年中 起伏이 별로 없는 工産物價格의 購買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不利한 地位에 머물게 된다.

⑤ 우리나라 農産物價格形成에 있어서 供給의 過少는 供給의 過剩보다 價格變動에 더 큰 影響을 끼친다. 元來 農業生産의 自給率이 낮은데다가 商品化率이 또한 低率인 自給生産에 置重하고 있는 까닭에 供給이 不足될때 價格의 上昇壓力은 倍加되며 供給過剩일때 農家の 自家消費가 擴大됨으로서 價格低落은 相當히 緩和되고 있다.

⑥ 菜蔬, 果實類의 경우 이의 加工施設이 없고 또 長期的인 保管이 困難하기 때문에 價格騰落은 作況에 따라 甚하다.

⑦ 特用作物은 一部 政策的인 育成을 위하여 買上政策을 쓰고 있으나 이들 原料로 使用하는 國內産業이 아직 發展되지 않았고 輸出品인 경우 이들에 대한 國際市場의 需要 및 價格이 極히 不安定하기 때문에 그 成長은 크게 制約되고 있다.

⑧ 農産物은 分散된 農民이 個別的으로 供給主體가 되어있고 이들의 市場에 대한 知識이 不完全하기 때문에 價格形成에 있어 中間商人의 役割이 크다. 그 結果 流通經路에는 많은 中間商人이 介入하며 이들이 價格形成에 積極的인 影響을 끼친다. 따라서 農民의 生産者販賣價格과 消費者支拂價格사이에는 相當한 格差가 있으며 대개의 경우 價格暴騰의 利得은 이들 中間商人의 手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같은 몇가지 特徵을 指摘하여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農産物價格政策의 方向에 대한 重要한 示唆을 얻게 된다.

우선 農産物價格政策에 있어서 第一次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것은 生産費에 土臺를 둔 絕對水準의 高低보다도 어떻게 起伏이 甚한 農産物價格의 季節變動의 幅을 緩和시키느냐는 것이다. 實際로 年間을 통한 農産物價格의 水準이 前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季節變動의 幅이 크게 縮小된다면 消費者는 물론 生産者인 農民에게도 有益할 것이다. 이와같은 價格騰落의 緩和를 위하여 쓰여질수 있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역시 政府의 市場操作에 두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事實 過去 政府는 市場操作을 위한 充分한 備蓄米의 確保를 願하였다. 그러나

買上價格은 언제나 秋收期의 市場價格에도 未達하는 低水準으로 決定되었다. 이와같은 狀態下에서는 春窮期에 대비할 充分한 備蓄糧穀의 確保는 事實上 不可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政府는 秋收期의 買上價格을 당시의 市場價格으로 決定하는것이 必要하다. 이때 물론 그와같은 買上資金을 어떻게 調達하느냐의 問題가 提起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資源이 비록 인플레이의 方法에 의하여 調達된다 하더라도 過去에 되풀이 되었던 農產物價格의 暴騰과 이를 先導로한 餘他物價의 上昇에 比한다면 그 影響은 훨씬 적을 것이다. 이로서도 不足되는 食糧은 미리 導入確保되어야 한다. 이것은 過去의 外穀導入이 價格暴騰이 일어날때 비로소 서둘므로써 適期를 喪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서 더욱 重要視된다. 事前에 市場操作에 必要한 糧穀을 充分히 確保함으로써만이 價格變動은 緩和될수 있을 것이다.

한편 價格의 安定과 아울러 長期的으로 政府의 買上價格이나 市場價格이 生産費以下로 固定되어서는 안된다. 農產物價格의 安定은 長期的으로는 農業生産性的 向上을 통한 供給增大를 通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勿論 經濟全般에 最大利益을 주는 價格水準을 設定한다는 것은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便宜의인 價格設定의 理由가 될수는 없다. 적어도 生産費 패리티指數 競爭作物의 價格變化 一般都賣 및 消費者物價指數의 動向과 消費者의 所得水準에 대한 면밀한 檢討가 必要하며 長期的으로는 生産費를 保障하는 線으로 策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工業原料인 特用作物 및 果實 畜產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을 原料로하는 加工工場의 設이나 比較的 安定性있는 海外市場의 確保가 먼저 先行하여야 한다. 이러한 뒷받침없는 價格支持政策은 우리나라의 經濟事情으로보아 實效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筆 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附屬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